

韓·인도 경제관계의 발전적 전망



白 佐 欽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인도학회장

지난 10월 6일 인도의 주요 경제일간지 『Economic Times』는 “한국의 포항제철로부터 오릿사(인도 동쪽의 한 주)에 1천만 톤급 제철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인도 사상 최대 8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 제안을 두고 인도는 크게 흥분해 있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인도 대신 브라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한국회사는 브라질의 거대 철광회사 CVRD와도 114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와 오릿사 주 정부는 포항제철이 브라질보다 인도를 선택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고 있다. 이 기사는 한·인도 수교 30주년을 즈음하여 이

루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더욱 심화될 한·인도 경제관계의 밝은 전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인도는 기원 4세기 경부터 불교를 통한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갖고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기 동안에는 소원한 관계였다. 양국은 1973년에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양국관계, 특히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진전된 것은 소비에트 블록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에 들어서였다.

1990년대 초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패러다임에 기초한 세계화시대가 개막되면서 한국과 인도는 경제구조 개혁에 착수했다. 인도의 라오(P.V. Narasimha Rao)

정부는 1991년에 자유주의적 개방경제제도를 지향하는 종합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한국의 김영삼 정부는 대대적인 ‘세계화’ 캠페인과 금융자유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처럼 양국이 세계경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새롭게 수렴하면서 교역과 투자 등에서 무수히 많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나아가 인도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하여 전통적인 통상 상대국들이 사라지게 되자 외부 통상의 방향을 새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한국도 미국이나 유럽공동체와 같은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통상마찰이 증가하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냉전시대 초강대국들의 적대관계가 완화되자, 한국은 고심 끝에 ‘북방정책(Nordpolitics)’을 개시하여 이전의 공산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였으며 기존의 미국, 유럽공동체, 일본 등에 집중되어 있던 해외투자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ASEAN 국가들에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한국의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염려를 배경으로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큰 시장이자 ‘개발되지 않은’ 시장인 인도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도는 냉전종식 후 동서 양 진영 국가들과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면서 인도 동쪽

에 있는 국가들에 관심을 집중하는 ‘동방지향 정책(Look East Policy)’을 추구하고 있다. 인도는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신흥공업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에 충격을 받았고 중국경제의 급부상에 크게 동요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ASEAN,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등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식민지시대, 전쟁 및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OECD의 일원이 되는 등 급상승한 경제적 지위를 점하게 된 한국은 인도의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 Shashank 전 주한 인도대사는 2004년 10월 6일자 『Times of India』지에 쓴 칼럼에서 “인도와 한국의 양자관계는 인도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구축하는데 유효하게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1993년 9월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인도 총리의 한국 방문에서 라오 총리는 “한국의 경험과 전문기술, 그리고 재무 및 국제마케팅 노하우를 인도의 천연자원, 저렴한 기술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 첨단과학기술 등과 결합시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방대합니다.…… 그러한 제품들은 제3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고 인도의 거대한 국내 수요를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기업들의 인도시장 투자를 공개적으로 초대하는 것이었다.

이후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전자, 자동차, 통신 금융서비스, 조선 등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발전, 고속도로 건설, 항만 개발 등을 포함하여 인프라부문과 시멘트, 비료, 중화학산업 등과 같이 지금까지 인도의 공공부문으로 보호되어온 산업부문들에도 경쟁적으로 투자를 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인도에 대한 투자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기준으로 본 한국의 대(對)인도 총누적투자액은 1991년 250만 달러에서 2002년에는 26억 4,800만 달러로 증가하여, 한국은 미국, 모리셔스, 영국, 일본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대(對)인도 투자국이 되었다. 이것은 인도의 총외국인직접투자의 4.1%에 해당한다. 양국 사이의 연간 총교역량은 2003년 4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약 5만 명의 양국 국민이 상호 방문하였다.

현재 인도에는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한국통신 등 약 200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인도 각지에서 거대한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 한국기업들은 인도 중산층 시장을 겨냥한 내구소비재와 유럽, 동남아 등 제3국 수출을 목표로 하는 기술집약적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1996년에 인도시장에 진출한 LG전자 인도현지법인은 인도 내구소비재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인도현지법인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 인도현지법인의 인도 내수시장

점유율은 2002년에 이미 20%를 넘어섰으며 유럽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이제 현대, LG, 삼성 등과 같은 한국기업들의 이름은 인도의 일상용어가 되었다.

2004년 10월 4일부터 3일간에 걸친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 심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한·인도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제통상관계의 실질적 협력 증진방안에 합의하였다.

먼저 양국은 현재 41억 달러 수준인 교역규모의 목표치를 2008년까지 100억 달러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양국은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타당성을 비롯한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공동연구그룹을 2005년 1월까지 발족하여 1년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발전, 해양설비 등 인도의 인프라 및 플랜트분야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포항제철의 오련사주 제철공장 건설투자를 포함한 철강산업분야, 정보통신기술, 섬유, 석유화학, 유전, 가스 개발 등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정보기술(IT)분야에서 경험과 기술노하우 공유를 위한 교류협력 증대를 위해 한국에 ‘인

도 소프트웨어 훈련센터' 건립 장려, 한국기업의 인도내 IT 하드웨어분야 투자 장려 등에 합의했다.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세계경제질서내에서 중국, ASEAN, 일본 등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한국과 인도는 무엇보다도 공격적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한국기업들의 추진력과 '브릭스(BRICS)'의 일원인 인도시장의 거대한 성장잠재력을 결합시킴으로써 아시아 경제질서의 중추로서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